제15절 오산2리(烏山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산 능선(山 陵線)을 넘어 7번 국도이며, 남쪽은 오산1리와 인접하고, 북쪽은 오산3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또한, 마을 앞바다에 높은 바위가 많아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80년에 건립되었다. 최근에 펜션 등 관광여행 시설이 대거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이 마을은 1670년경에 안동 김씨(安東金氏) 성구(成九)라는 사람이 개척하여 마을 이름을 '지심'이라 하였는데, 1680년에 울진 임씨(蔚珍林氏)가 입주하면서 뒷산에 대나무가 무성해지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면서 초산(草山)이라 개칭하였다 한다.

1) 범골

예부터 골이 깊고 험하여 범이 잘 나타난다고 하여 범골이라 하였는데 숲이 우거졌을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 다녔다 한다.

2) 엄나무고개

마을을 개척할 무렵에 고갯마루에 엄나무가 무성하였다 하여 엄나무고개라 하였으며 지금도 몇 그루가 남아있다.

3. 가구 분포

총 58세대가 거주하며 울진 임씨(蔚珍林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진주 강씨(晋州姜氏), 성주 도씨(星州都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등이 주로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

매년 정월대보름날과 팔월보름날에 제관을 선정하여 풍년 농사와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

제사를 지낸다.

2) 특산물

어촌으로 방어, 광어, 문어 등 많은 해산물이 생산된다.

제16절 오산3리(烏山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와 접하고, 서쪽은 산(山) 능선이 매화1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오산2리, 북쪽은 근남면 진복2리와 인접해있다. 마을회관은 201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725년경에 삼척 김씨(三陟金氏)가 이 마을을 개척할 때 해변의 갯벌에는 해당화가 곱게 피어있고, 또한 해변이 기암절벽(奇巖絶壁)으로 형성되어 자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중국의 무릉도원(武陵桃園)을 연상케 함으로 마을의 이름을 무릉(武陵)이라 하였다 한다.

1) 고래바위

바위 모양이 고래와 흡사함으로 고래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2) 국립수산진흥원종묘배양장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설치한 종묘배양장으로, 1989년부터 넙치, 전복, 연어 등 종묘를 배양하여 앞바다에 방류,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3) 복바위(福岩)

마을 북쪽에 있는 산(山) 끝에서 약 300m 거리의 바다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갈매기가 앉으면 큰 고기떼가 모여든다고 하여 복바위라 전해지고 있다.